

(번역문)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체코 국립미술박물관은 문화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양측은 상기 언급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

1. 양측은 슈테른베르크궁전으로 이전하여 개관할 예정인 체코 국립미술박물관에 한국실의 설치를 위해 협력한다.
2.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체코국립미술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시 체코국립박물관의 전시 취지에 부합하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체코국립미술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의를 통해 체코국립박물관의 전시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사전 협약을 거친 한국실 설치를 위한 적합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체코어로도 작성되며, 이 두 가지 언어로 된 문서는 참고를 위해서만 제공된다. 따라서 영어본과 두 번역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오직 영어본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날짜: 2016년 4월 28일

(서명)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여

(주소: 04383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서명)

체코국립미술박물관을 대표하여

(주소: Staroměstské náměstí 12, 110 15
Prague 1, Czech Republic)

체코국립미술박물관장

Doc. Dr. et Ing. Jiří Fajt, Ph.D.